

보성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등 5개 사업

보성군은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5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대로 사업비는 8억874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사업 신청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우선 선정해 지원

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 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기액에 따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cc를 초과하면 최대 770만원 까지 지원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이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고,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딥프트럭, 콘크리트미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되고 지원 금

액은 차량에 따라 대당 824만원부터 11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건설기계 종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해당되고,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되며 의무 사용 기간은 최소 3년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준과 동일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노후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29%를 차지한다"며 "이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2019년 운수종사 교육 실시

고흥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종합문화회관 송荫섭실에서 군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내 운수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315명(버스 62 택시 64, 회물 132, 용달 57)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법규 숙지와 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안전운전 역량강화를 통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친절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前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 김도희 교수의 '운동은 인생의 최고보약'이라는 강의에 이어, 사람숲 컨설팅 양지현 대표의 '친절 올리고 마음 다스리고'란 주제로 교육생들에게 고객 서비스 이미지 연출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여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흥=한윤섭 기자

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화순군은 9월 한 달 동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사업비 6억72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부담과 개인 사정 등으로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추가 접수 규모는 29개 등(棟)이며, 신청은 선착순이다.

지원 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과 축사 등을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주거용 주택)이면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선정·지원한다. 1개 동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제43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 성료



제43회 영광군민의 날 체육한마당 행사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 일간의 일정으로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열려 군민 역량결집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5일 열린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김준성 군수와 이기호 국회의

원, 김학용 국회의원, 강필구 군의장, 도·군의원을 비롯해 담양군수,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 광주시 남구 김병내 구청장, 인천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 광주시 서구의회 강기석 구의장, 장성 부군수 및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향우, 주민 등 5,000여명이 참여해 군민이

하나 됨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 입장에 이어 군민의 상·행남효행상·명예군민의 상 시상, 대회사, 축사 등 기념식과 식후 군민화합 한마당, 체육경기 본선,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군민의 상 및 행남효행상은 각각 김은규(염산면) 씨와 임기화(백수읍) 씨가 수상했고 김학용 국회의원이 명예군민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등호회 및 장애인 친선경기를 확대하고 입장식에 e- 모빌리티 기기를 이용한 퍼포먼스 입장을 포함하는 등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했다.

체육경기 결과 백수읍이 종합우승을 영광읍 2위, 흥농읍 3위, 군서면 4위, 군남면이 5위를 차지했으며 순위를 떠나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쪽쪽가무시증 주의 당부

구례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이 다가옴에 따라 별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발열성질환인 쪽쪽

가무시증은 텔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물린 부위에는 가피(검은 짜파)가 나타난다.

김암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

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쪽쪽가무시증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유충이 활성화에 활동하는 9월 ~11월까지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시, '한국의 툰베리' 공모 실시

순천시에서는 10월 23일~25일까지 세계 18개 습지도시 지역체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대표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행동을 촉구할 '한국의 툰베리를 찾아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레타 툰베리'는 16살 스웨덴 소녀환경 운동가로 지난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막기 위해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를 위한 학교'를 스웨덴의회 앞에서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순천시에서 공모하는 '한국의 툰베리를 찾아라'에서

는 '괜찮아 지구야' 캠페인 운동본부와 함께 경연을 통해 전국의 5세에서 13세까지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를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9월 10일부터 29일까지로 1차로 10명을 선발하고 2차 최종 경연을 통해 최종 1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어린이 환경리더는 세계 18개 습지도시 지역체장 회의에서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과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의 기회가 마련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재활용 자동수거기 '日 200개' 제한

여수시가 오는 23일부터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1일 1인 투입량을 200개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일부 시민이 수거기에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투입해 기기 사용이 어렵다는 민원을 접하고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자동수거기는 투입된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해 입착하고 그 외 품목이 투입되면 수거를 거부하는

자판기 형태의 로봇이다.

현재 여수시청, 거북선공원, 여문공원, 이순신광장, 해양공원, 박람회장에 설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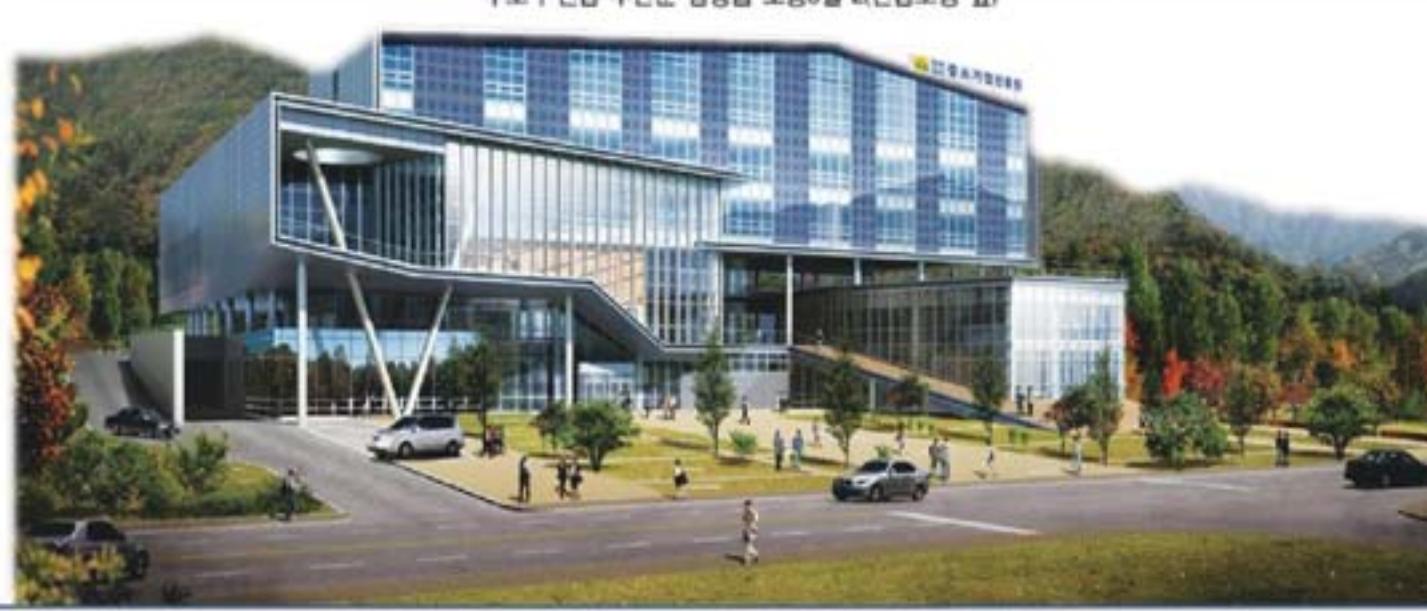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운영한 결과 100만 원 이상 적립자가 나오고 수거기 추가 설치 요구가 빗발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동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전문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쟁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